온몸으로 맹견 막아 동생 살린 6살 소년

▲ 브리지 워커와 동생. 사진=니키 워커 인스타그램

동생에게 달려드는 맹견을 온몸으로 막아선 6살 소년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9일, 와이오밍주 샤이엔 지역에 사는 브리저 워커(6)는 이웃집 셰퍼드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이 개가 이빨을 드러내며 동생을 덮치자 소년은 온몸을 던져 그 앞을 가로막았다. 개에게 심하게 물려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동생 손을 붙잡고 내달려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워커는 머리와 얼굴, 특히 왼쪽 뺨을 크게 물린 소년은 90바늘을 꿰맸다.

워커의 숙모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사연을 공개하고 조카의 이야기를 널리 퍼트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조카가 좋아하는 슈퍼히어로에게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면서 "슈퍼히어로들이 새롭게 팀에 합류한 '작은 영웅' 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러자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가 소년의 이야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해서웨이는 "내가 어벤져스 일원은 아니지만, 슈퍼히어로를 알아볼 수는 있다." 고 밝히고 "내가 너의 반 만큼만이라도 용감해졌으면 좋겠다. 어서 회복하길 바란다." 는 뜻을 전했다. "혹시 팀 동료 안 필요하냐?" 며 '헐크' 의 주인공 마크 러팔로를 태그했다.

러팔로도 즉각 반응했다. 그는 "자신보다 다른 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사려깊고 용기있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너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고 박수를 보냈다.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는 소년과 직접 영상 통화를 하며 격려했다.

소년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숙모는 "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 수 없는 상태지만, 여러 사람의 칭찬과 격려에 싱글벙글하고 있다." 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다만 조카들을 공격한 개 주인은 평소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악감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7살 때 입양한 아들과 결혼한 30대 여성

30대 러시아의 여성이 입양한 아들과 결혼,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네티즌들은 비난하고 나섰다.

14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러시아에 사는 마리나 발마세바(35)는 지난 5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입양한 아들인 블라드미르 샤비린(20)과 다정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개 연애를 선언했다.

▲ 입양 당시의 샤비린과 마리나(왼쪽)과 현재 모습. 사진=마리나SNS

마리나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함께 샤비린을 입양해 키웠다. 당시 마리나의 나이는 22세, 입양한 아들의 나이는 7세였다. 마리나는 어린 아들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봤고, 샤비린은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며 10여 년을 보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부모와 자녀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리나는 최근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샤비린과 혼인 신고를 마쳤다. 당시 나는 머리도 빗지 않은 상태로 혼인 신고 사무소를 찾았는데, 샤비린이 깜짝 선물로 반지를 준비해 기분이 매우 좋았다." 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이어 "혼인신고가 끝난 뒤 우리는 웨딩 파티를 즐겼고, 몇몇 하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현재 임신 상태이며, 조만간 큰 도시로 이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행복하고, 당신도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가 됨에 따라, 마리나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들이자 샤비린의 형제였던 다섯 아이를 함께 양육하게 된 가운데, 네티즌들은 "본인 손으로 키운 아이와 이성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 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핵전쟁 · 대지진에도 끄떡없는 초호화 벙커

핵전쟁 등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5년은 문제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초호화 벙커가 공개됐다.

폭스뉴스는 최근 등 핵전쟁, 바이러스, 대지진 등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1% 부자들을 위한 지하 콘도를 소개했다. 이 벙커는 '서바이벌 콘도' 로 불리며, 캔자스시티 인근에 건설됐다는 것 외에 정확히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바이벌 콘도의 내부는 상상을 초월한다. 먼저 전체적인 모습이 15층 아파트를 지하에 건설한 것으로 보이며 작은 도시의 편의시설은 전부 들어가있다. 호텔방 같은 숙소 외에도 상점, 의료시설, 사우나, 극장, 수영장, 술집, 사격장, 신선한 생선과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다. 여기에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교실과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다.

▲ 서바이벌 벙커 내에 있는 수영장과 당구장. 사진=survivalcondo.com

물론 이 벙커에 '입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있어야 한다. 가장 싼 숙소라도 분양받으려면 최소 150만 달러가 필요하며 매달 2500달러의 관리비는 별도다. 이렇게 총 75명 입주가 가능하며 핵전쟁 후 5년을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자가 비축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바이벌 콘도의 자리는 과거 냉전시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밀리에 보관하던 벙커였다가 폐기됐다. 이렇게 방치된 벙커는 방위산업일을 하던 래리 폴이 지난 2008년 사들여 지금의 서바이벌 콘도로 건설했다.